

광주 인문계고 신입생 통학불편 늘어날 듯

‘밀레니엄 베이비 세대’로 입학생 전년보다 늘어 근거리·선호학교 배정 확률 낮아져... 오늘 결과 발표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 발표와 관련, 중 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조짐이다. 2000년을 맞아 출산율이 반짝 올라간 ‘밀레니엄 베이비 세대’들의 고교 신입생 숫자가 예년보다 많아 자칫 학교 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일 오전 10시 2016학년도 평준화 일반고교 신입생 합격자에 대한 추천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47개 일반계 고교 신입생 숫자는 남학생 8184명, 여학생 8104명 등 1만6288명으로, 전년도(1만5895명)보다 395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89개 중학교 3학년생들이 절반 가량 줄어든 47개 고교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평소보다 신입생 규모까지 늘어난 셈이다. 늘어난 신입생의 대다수는 여학생인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했다.

광산구의 경우 올해 25개 중학교 3학년생은 5104명에 이르지만 동일 지역 10개 고교 1학년 규모는 3722명에 불과하다. 서구도 15개 중학교 3학년생(3176명)이 같은 지역 8개 고교 1학년 정원(2528명)보다 훨씬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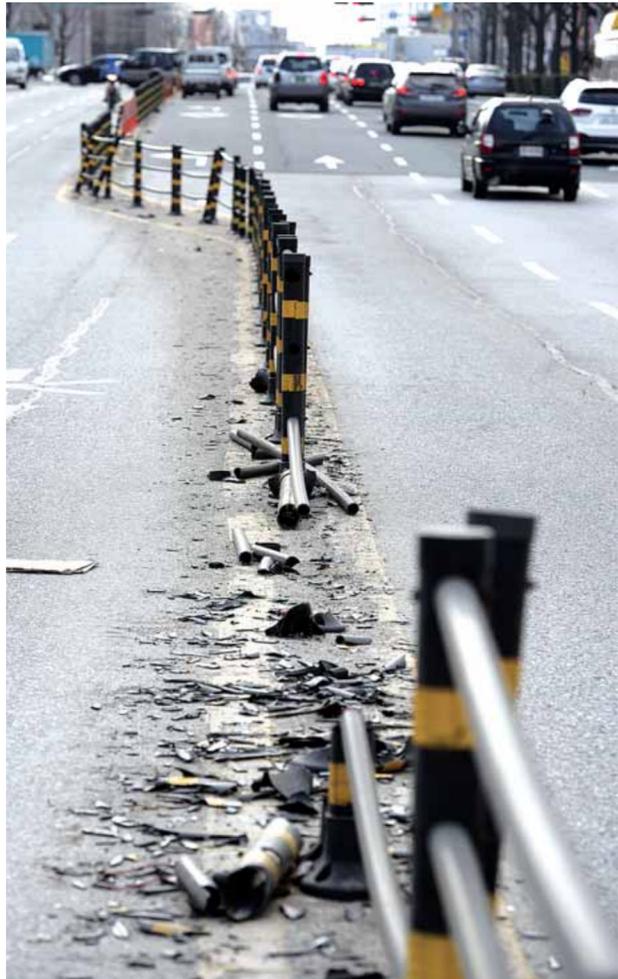
고교 배정 방식은 달라진 게 없다. 시교육청은 거리와 관계없이 고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지원추천배정(선지원)으로 정원의 40%를 선발하고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배정가능고교를 선택하는 후지원추천배정(후지원)에서 60%를 뽑는 고교 배정 방식을 유지했다.

전년도와 같은 조건에서 신입생 규모가 늘어나 2030명이 다른 구의 고등학교로 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 배정 과정에서 희망·선호 학교를 배정받을 확률이 낮아지거나 실제 통학 시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년도와 같은 조건에서 신입생 규모가 늘어나 2030명이 다른 구의 고등학교로 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 배정 과정에서 희망·선호 학교를 배정받을 확률이 낮아지거나 실제 통학 시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산수동 필문대로 중앙분리대 파손 방지

1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필문대로의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채 며칠째 방치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직도 건강진단서에 맹자·불구폐질자...

법령용어 개선 1년...광주 남구보건소 장애 비하 용어 수두룩

장애우권익연구소 시에 진정

공공기관인 광주시 남구보건소에서 장애인 차별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 광주시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1일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남구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에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들이 담겨 있어 광주시 인권운동부즈맨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남구보건소는 지난달 발급한 주민의 건강진단서에 ▲농자 ▲아자 ▲맹자 ▲불구폐질자 등 정부가 개선해야 할 법령용어로 선정된 장애인 비하 용어를 표기했다. 정부는 2014년 심의·의결된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에 관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각각의 용어들을 ▲정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장애와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 등으로 순화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시민은 비장애인으로 남구보건소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기재

된 용어가 이상하다고 느껴 연구소에 상담을 의뢰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해당 용어들은 장애를 ‘몸’의 문제로 인식했던 과거의 용어를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직장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건강진단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 활용되는 만큼 남구보건소는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시대착오적 용어 사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번 진정과 함께 광주지역 공공기관의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 여부도 파악해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진정 내용을 토대로 남구보건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정책 개선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공공기관인 보건소에서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차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국 시·도 교육감 내일 ‘누리예산’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3일 긴급 회동을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들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남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해결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국경 광주시교육감과 조현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7개 시·도 교육감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책정한 교육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교육감과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등 정부 대표와 여·야 대표, 보육·유아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2 해질 18:01
달출 01:33 달짐 12:34

일부지역 눈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4/3 | 보성 | 맑음 | -5/3 |
| 목포 | 눈오 뒤 갠 | -2/2 | 순천 | 맑음 | -3/4 |
| 여수 | 맑음 | -2/4 | 영광 | 눈오 뒤 갠 | -5/1 |
| 나주 | 구름많음 | -6/4 | 진도 | 구름많음 | -2/3 |
| 완도 | 구름많음 | -2/3 | 진주 | 맑음 | -6/2 |
| 구례 | 맑음 | -6/3 | 군산 | 구름많음 | -7/1 |
| 강진 | 구름많음 | -3/3 | 남원 | 맑음 | -8/2 |
| 해남 | 구름많음 | -4/3 | 속산도 | 구름많음 | 0/2 |
| 장성 | 구름많음 | -6/2 | | | |

◇ 바다 날씨

| 지역 | 해상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 앞바다 | 북서~북 | 0.5~2.0 | 북서~북 | 0.5~1.5 |
| | 면바다 | 북서~북 | 1.5~2.5 | 북서~북 | 1.0~2.0 |
| 남해 | 앞바다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0.5~1.5 |
| | 면바다(동) | 북서~북 | 1.5~2.5 | 북서~북 | 1.5~2.0 |
| 서부 | 면바다(서) | 북서~북 | 1.5~2.5 | 북서~북 | 1.0~2.5 |

◇ 생활지수

| | |
|------|------|
| 체감온도 | 관심 |
| 동파 | 낮음 |
| 뇌졸중 | 매우높음 |

◇ 물때

| 목포 | 밀물 | | 썰물 | |
|----|-------|-------|-------|-------|
| | 08:06 | 20:12 | 00:47 | 13:24 |
| 여수 | 03:08 | 15:16 | 09:19 | 21:36 |

◇ 주간 날씨

| 3(수) | 4(목) | 5(금) | 6(토) | 7(일) | 8(월) | 9(화) |
|------|------|------|------|------|------|------|
| ☀ | ☀ | ☀ | ☀ | ☀ | ☀ | ☀ |
| -5/6 | -3/7 | -2/5 | -3/3 | -3/4 | -2/5 | -1/7 |

전남,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

“달성 어렵다” 보도후 기탁 줄이어...광주도 초과 달성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전남 ‘사랑의 온도탑’이 캠페인 마지막 날 100도를 달성, 17년 연속 목표치를 채웠다.

1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전남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희망2016나눔캠페인 실적에 잠정 집계한 결과, 모두 79억7000만원이 모금돼 목표액(79억5000만원)을 2000만원 초과 달성했다.

기부자 유형별로는 개인이 39억원(49%)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법인 35억원(44%), 종교 및 사회단체가 5억7000만원(7%)을 기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남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89도에 머물고 있어 17년 만에 100도 달성이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남지역 각 기업과 22개 시·군, 마을단위 주민들의 성금과 물품 기탁이 이어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GS칼텍스와 노동조합이 8600만원에 기탁하는 등 캠페인 마감을 불과 1주일 남기고 3240여건의 기부가 이어졌다.

전남공동모금회는 오는 4일 목포시 옥암동 동청 진입로 사거리에서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31일까지 41억8690만원을 모금해 목표액(35억7000만원)을 6억1690만원 초과 달성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경찰, 선거사범 24시간 단속

광주·전남 경찰청은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1일부터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일제히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했다.

수사전담반은 광주경찰청 94명, 전남경찰청 224명 등 총 318명으로 구성됐고, 이들은 24시간 상시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